

다음 세대는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될 것이다.

53%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는 빠른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변화로 다음 세대에는 물부족현상과 석탄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 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006년 기준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GNI(국민총소득)는 34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갤럽에 의뢰해 전세계 60개국 6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 세대는 경제적으로 더 잘살게 될까”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 1,508명 중 5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아시아 조사대상 국가 12개국 중 홍콩(65%)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아시아 평균(2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20%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각국의 장래를 예측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나이지리아, 케냐, 홍콩, 베네수엘라에 이어 ‘앞으로 번영할 나라’ 5위에 랭크됐다.

또 향후 1년간 수익증대가 예상되는 나라 중 6위를 마크했다. 그러나 기업가의 부도덕과 경쟁력 부족을 묻는 항목에서는 4위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번영을 예상한 순위는 15위인 반면, 퇴보 예상 질문에는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개발도상국과 중진국 국민들은 그들의 장래를 밝게 내다 봤지만 선진국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다음 세대에 번영할 것으로 예상한 나라 1위는 나이지리아로 78%의 지지를 받았고 2위는 67%의 케냐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은 53%로 홍콩(64%) 베네수엘라(55%)에 이어 5위를 마크했다. 이어 인도, 러시아, 남아공, 호주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반대 질문도 동시에 진행, 8위 남아공 이하는 번영(32%)보다는 퇴보 예상(38%)이 더 높았다. 한국의 경우 퇴보를 예상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퇴보를 예상한 의견들이 훨씬 높았다. 번영부문 9위(28%)인 영국은 퇴보가 37%였고 번영부문 10위(27%)인 미국은 퇴보가 4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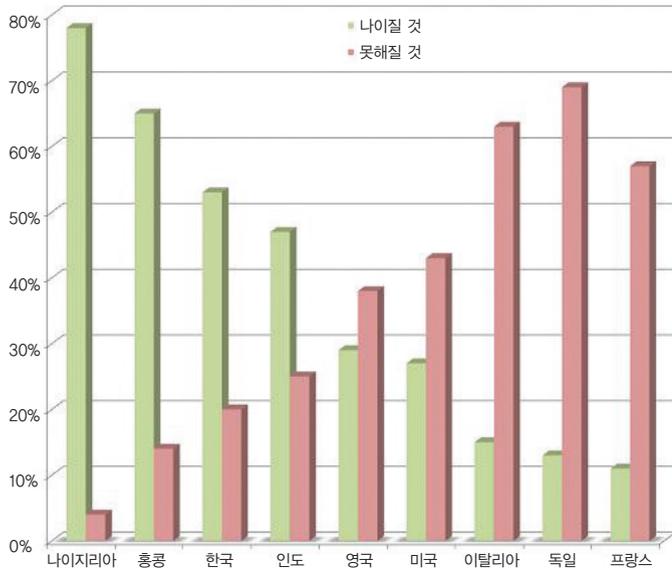
자국의 미래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국민들은 독일인이었다. 퇴보 예상의견이 68%로 1위였고 이탈리아가 63%로 2위, 일본은 48%로 3위에 랭크됐다.

기업가의 부정직과 경쟁력부족을 묻는 질문에서는 독일이 71%로 가장 높았고 베네수엘라(57%), 러시아(55%), 한국(5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들 역시 기업가들의 부도덕과 무능력에 대해 비판의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반대로 우리 기업가가 정직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답한 의견은 18%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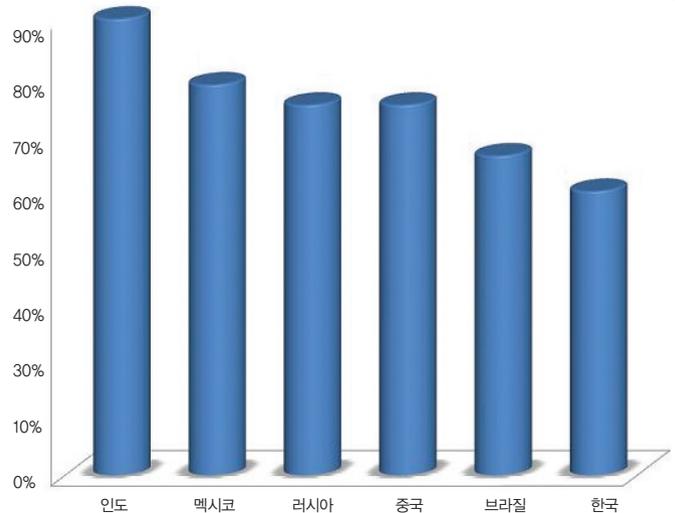
일본의 경우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29%, 긍정적인 의견은 18%로 조사됐다. 남아공은 긍정적 의견(39%)이 부정적 의견(38%)보다 거의 대등한 수치였고 케냐도 긍정(31%)과 부정(28%)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CEO들에게 물어본 향후 1년간 수익전망은 인도가 90%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77%), 러시아와 중국(이상 73%), 브라질(63%) 순이었다.

한국은 56%로 독일과 공동 6위에 랭크됐다. 한편 미국은 35%로 10위, 일본은 31%로 11위를 마크했다. 



〈다음 세대에는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될 것 같습니까〉



〈CEO들의 향후 1년 간 수익전망〉

예전에는 항상
마음의 향방에 유의하고
감정의 진폭을 다스리려 애썼다.
그러나 이제는 몸의 상태에 더 귀를 기울이고
몸의 건강을 조절하려 애썼다.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요,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 김형경의《사람 풍경》중에서 -

